

성령의 역사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뤄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목회자들과 MMTC 대만 비전 트립 등 국내외 소식.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선리를 이루셨으며, 천국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의 소리가 발해 질때 신속히 응답받기 위한 비결을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012년 제4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 김정수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

만민뉴스

제567호 2013년 2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충만합니다”

파키스탄, 브라질 해외 목회자들 우리 교회 방문



① 브라질 구스타보 멜로 목사(왼쪽 두 번째)와 파키스탄 유세프 소헤일, 카라맛 일야스 목사(왼쪽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다. ②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GCN 방송을 방문하고,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공존하는 무안단물수족관을 관람했다. ③

MMTC 대만 비전 트립

세계를 향해 성결의 오중복음을 전할 선교 인재 양성과 관련된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대만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

훈련생들은 교육과 노방전도, 선교정탐, 협력교회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종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다. 나아가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복음 전파의 소명이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국제문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총동원 전도집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사역이 담긴 '권능' DVD와 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비디오 상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천국 소망이 넘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이어진 환자 기도를 통해 쉬핑핑 성도(59세)는 들리지 않던 왼쪽 귀가 들리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고통받던 관은핑 자매(18세)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고 많은 사람의 시력이 회복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연초부터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배우기 위한 해외 목회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지난 1월 18일, 10박 11일 일정으로 파키스탄 총회장 및 교회 대표자협의회 회장 유세프 소헤일 목사와 총무 카라맛 일야스 목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금요철야예배,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GCN 방송(이사장 이재록 목사), 무안단물터(권능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된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수족관 등을 둘러보았다.

유세프 소헤일 목사 일행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이후, 파키스탄 전역에서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인도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사역으로 인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회고하며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금까지도 성회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무수한 치료 역사가 나타난 파키스탄 기독교계의 역사적인 성회였다.”라고 그때의 감동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성회 이후 10여 년간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열린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

건 집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공급받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행복해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깨우쳐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많은 영혼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해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며 감사해했다.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한 일행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밤 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느꼈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모습에 은혜받았다.”며 놀라워했다. 다니엘철야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회를 열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쫓아오는 주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세프 소헤일 목사 일행이 소속된 파키스탄 총회장 및 교회 대표자협의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국제이사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이에 관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며 영적으로 이끌어 줄 분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재록 목사님이 적임자라는 뜻이 모아졌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7일에는 브라질 구스타보 멜로 목사가 7박 8일 일정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는 '민족을 위한 사도협의회'(산하 140여 개 지교회를 두고 북인도,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에서 사역) 대표로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 및 주의 종과 일꾼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고아원 등을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12년 9월에 열린 WCDN(세계기독교사 네트워크) 멕시코 지부 주최 아메리카 콘퍼런스의 강사로 참석한 그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놀라운 권능 치유사례를 보고 만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 GCN 방송, WCDN 본부, 무안단물수족관 방문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선교 비전을 새롭게 했다.

구스타보 멜로 목사는 “만민중앙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묻어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충만한 찬양, 특송, 성가대를 비롯, 탄탄한 조직력 등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했다.

칼럼 | 반전의 기쁨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약조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도를 쫓아야 합니다. 잠깐 상대를 속이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시 73:1)

글/ 조선일보 연재 이재록 목사 '길 칼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2)

리고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짐승의 우리 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참된 양식이 되 기 위해(요 6:51) 짐승의 먹이 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지요.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 드는 첫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 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천국 복 음을 전파하셨지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 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문둥병 자가 고침받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가던 사람이 무덤에 서 걸어 나왔지요(요 11장).

정죄치 않으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여 인뿐 아니라, 그녀를 정죄한 자들이라 할지 라도 율법으로 찌르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 음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17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지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사 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율 법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 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 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기도하 시며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이나 달려 고통 당한 뒤 운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막 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렸 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 접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천국 처소를 예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끄시는 사랑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천국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지요(요 14:2-3).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 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 십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간절히 기 도하시지요(마 26:29).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승리하고 영혼이 잘돼 하나님 영광 을 나타내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을 마친 후 백보좌 대심판 때에도 주님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 십니다.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 한 일들에 대해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좋은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 호해 주십니다. 직접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했기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대 입장에서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 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셨습니 다. 이 사랑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 끼지 않는 생명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온 세상에 복음 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 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시지 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에 친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 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 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 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다 할 것 이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라 정죄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 로 군중에게 해당되는 죄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써내려 가는 자신의 죄목을 보고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하나 그 자리 를 떠나고 여인만 남게 됐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라”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여인을

3.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 십리를 이루신 사랑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 서는 죽음을 앞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간 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피 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 원하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 방울같이 돼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눅 22:42-44).

그날 밤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는 심문을 받은 뒤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 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 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처형장으 로 끌고 갔습니다(마 27:28-31). 밤새 희롱 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몸으 로 예수님께서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끌고 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이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 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율법 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다 쏟으셨지요. 머리 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우 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 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십자 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 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 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꿉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 죄인 취급받던 세 리, 가난한 자, 과부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보다 이제껏 받아 보 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스스 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영혼들이 하 나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 셧을까요?

1.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 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 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근본의 소리로 신속히 응답받으려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 68:33)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을까? 어떤 형상이 없이 웅장한 소리를 머금은 영롱한 빛으로 온 우주를 감싸고 계셨다 (요 1:1, 요일 1:5). 광활한 우주 공간을 근본의 빛과 소리로 다스리시며 홀로 존재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때가 이르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근본의 소리를 발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창 1:1~26).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근본의 소리를 알 수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하시는 근본의 소리를 통해 눈먼 사람이 믿음으로 신속히 응답받는 사건이 나온다. 과연 신속한 응답의 비결은 무엇일까?

마음 중심에서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을 나타내며 말씀을 확증하셨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뛰고 문둥병이 치료됐으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귀신이 나가는 등 갖가지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된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이르렀는데 마침 길가에 눈먼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안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의에 맞게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죄가 들어오고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니 그때부터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다(창 3:19).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한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야곱이 압박 강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면서까지 기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창 32:24-30),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 끝에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듯이(왕상 18:42-46), 마음과 뜻과 정성,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눈먼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앞서 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그는 기분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 오라고 명하신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기에 응답받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걸옷을 내버리는 순종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게 하시자 그는 걸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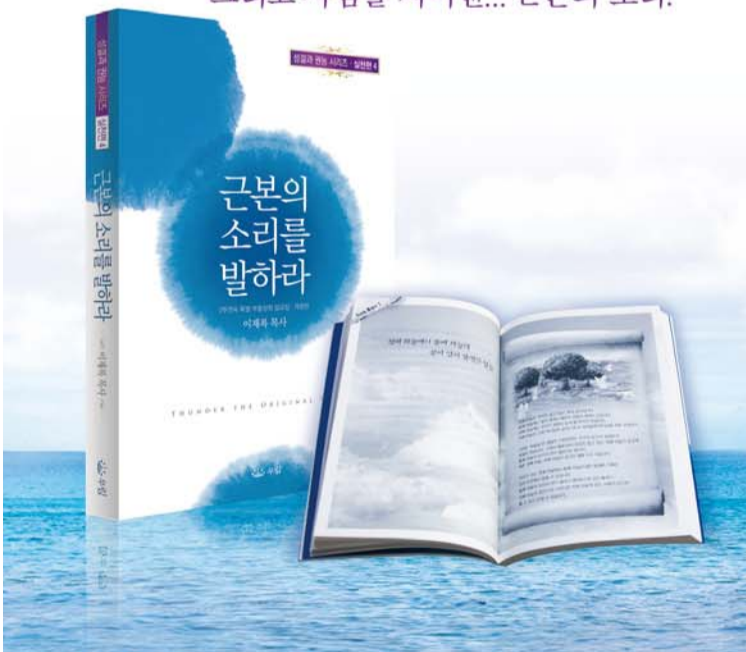
여기서 걸옷은 영적으로 자존심, 교만 등 온갖 더러운 비진리의 마음을 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추하고 냄새나는 모든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담대히 고백한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즉시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 떠올려 주시는 것을 날날이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해야 한다. 모쪼록 공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근본의 소리를 발하실 때 담대하게 소원을 고백하고 응답받기 바란다.

-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8장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중에서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과 산천 초목
그리고 사람을 지어낸... 근본의 소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3.2.3~2.9)

2 February 謹賀新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22-24
- 공부 잘하는 비결 5-9
- 믿음의 분량 10-14
- 창세기 강해 9-1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9-13

GCN TV설교

- 육과 영 6-10 (이수진 목사)
- 진실한 마음 (이미경 목사)
- 참 자녀 (박홍기 장로)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12-14 (정구영 목사)
- 일곱교회 1-2 (빈금선 권사)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3-8
- 찬양과 경배 [3] 51-58

해외성회 시리즈

- 이스라엘연합대성회 2
- 뉴욕연합대성회 - 종합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김정수 집사 가족



▶ 믿음의 가정으로 나오는 계기가 있으셨다면요?

1996년, 누나 김순애, 김순미 권사님의 전도로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1999년 모 방송사의 우리 교회에 대한 왜곡, 편파 보도 사건은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직장과 주변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추후도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시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더 크게 이루실 것을 믿었지요.

비록 초신자였지만 오직 성경대로 선과 사랑으로 행하시는 당회장님과 무수한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잦은 해외 출장으로 주일 성수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 한 달에 평균 한두 번은 해외출장을 다녀옵니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몹시 곤고했지요. 그래서 주일을 피해 출장 일정을 짜려고 노력했고,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절해 토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VIP 해외순방 수행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의 참가 및 우리나라 개최 행사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 온 가족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내 신혜숙 권사는 경찰 업무 외에도 강의, 언론사 인터뷰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고, 딸 김승윤 자매는 작년 1, 2학기에 과 수석과 차석으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지요. 또 아들 김승현 형제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에 진학했습니다.

▶ 올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만민 성도들에게 근본의 소리를 통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저도 그 주인공 중 한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당회장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산업포장 수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로 직무를 삼아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김정수 집사(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 3대대 32교구).

2012년 무역의 날 '산업포장'을 받은 그의 가족을 민민뉴스에서 만나보았다.

▶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우리나라는 2011년, 201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2011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해였지요. 25년간 한국무역협회에 근무한 저로서는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2012년 12월 5일, 저는 제49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증진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해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국가유공훈장으로 산업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實業)에 정려(精勵)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해 국가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국가유공자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상을 기업체가 아닌 지원기관의 헌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2011년 9월경, 아내 신혜숙 권사(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가 제66회 경찰의 날(10월 21일)에 우수경찰관으로 선발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무역의 날에 나도 대통령 표창을 받아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평소 저는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 설교를 통해 직장에서 솔선수범하며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 유익을 구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분이 돼 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신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제가 소원했던 대통령 표창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 산업포장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1·2조).

:: 김정수 집사 주요경력

- 2010. 11. 서울 G20 Business Summit 조직위원회 집행위원
2011. 5. 이명박 대통령 덴마크 국빈 방문 시 한-덴마크 경제인 비즈니스 포럼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3. 베트남 응웬 쯤 중 총리 초청 경제인 오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8. 코스타리카 라우라 친치야 대통령 초청 경제인 오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2012. 10.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사무국장
2012. 12. 파키스탄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 초청 경제인 만찬 간담회 행사준비 및 진행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서울서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새대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서량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 말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천장리 산 153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모남2동 1312-4 3층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3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분당지성전 서울특별시 분당구 갈매동 367-4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